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9. Vol. 14, No. 4, 871 - 890

대학생 음주규범 지각과 음주 및 음주문제의 관계[†]

신 행 우[‡]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음주규범 지각과 음주행동 및 음주문제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최근 3개월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대학교 신입생 874명(남 451명, 여 423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음주빈도, 평균주량, 음주문제, 친한 친구들과 일반 대학생들의 음주에 관한 기술 규범의 지각,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 및 일반 대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제재 규범의 지각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기술 규범의 지각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친한 친구들과 일반 대학생들이 자신보다 더 자주 또 더 많은 양을 마시는 것으로 과장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규범의 지각과 관련해서는 일반 대학생들이 위험한 음주에 대해 자신보다 더 허용적이며, 부모님은 자신보다 더 반대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중다회귀 분석 결과, 친한 친구들에 대한 기술 규범과 제재 규범이 음주빈도와 평균주량 및 음주문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이었으며, 부모님의 제재 규범은 음주문제를 예측하는데 있어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음주 규범이 대학생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준 것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대학생 자녀의 음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대학교 신입생의 음주문제 예방과 관련된 함의를 가진다.

주요어 : 음주규범, 기술 규범, 제재 규범, 음주문제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신행우, (565-701) 전북 완주군 삼례읍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Tel: 063-290-1378, E-mail: hwshin@woosuk.ac.kr

대학생의 과음은 주된 건강관련 문제들 중 하나이다. 물론 전 연령대에서 음주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되는 18세-24세 연령범위의 나이 어린 성인들은 음주율도 가장 높고 더불어 문제성 음주자의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Hasin, Stinson, Ogburn, & Grant, 2007). Vik, Carrello, Tate와 Field(2000)는 대학생들의 84.2%가 지난 3달 동안에 과음 내지는 폭음을 한 적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40%가 넘는 학생들이 최근 2주 동안에 폭음을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Wechsler, Lee, Kuo, & Lee, 2000; Johnson, O'Malley, Bachman, & Schulenberg, 2008)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몇몇 연구들(이원재, 2001; 임국환, 이준협, 최만규, 김춘진, 2004; 정영철, 은홍배, Li Bing, & Zhang Wei-Xi, 1999)에서 90%가 넘는 매우 높은 대학생 음주율을 보고한 바 있다. 더불어 이원재(2001)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한번 이상 과음한 적이 있는 대학생의 비율이 48.6%로 나타나 대학생 음주의 심각성이 외국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의 지나친 음주는 학업 성적의 저하, 동료나 가족들과의 불화, 위험한 성행위, 부상 및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Hingson, Heeren, Winter, & Wechsler, 2005; Perkins & Berkowitz, 1986; Wechsler et al., 2000). Hingson 등(2005)은 음주와 관련된 불의의 사고로 죽는 미국 대학생의 숫자가 매년 약 1700명 정도에 이른다고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대학생들의 높은 음주 수준과 음주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대학생 음주문제의 감소와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대학당국의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대학 캠퍼스에서의 과음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시도들 중 하나로 “사회규범 접근”이 1990년대 이래로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 이 접근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동료들의 음주 정도와 음주 허용 정도를 과대 추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음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과음이 유발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사회규범 접근에서는 잘못 지각된 음주 규범을 교정해주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음주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 새로운 조망을 가지게 해서 과음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Borsari & Carey, 2003). 즉 대학생들에게 실제의 규범을 제시해주면 자신의 음주 수준을 실제 규범에 더 가까워지도록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음주는 사회적 행동이므로 주변 동료들의 음주 정도와 음주패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Collins, Parks, & Marlatt, 1985). Berkowitz와 Perkins(1986)가 적당하게 술을 마시는 대학생들에 비해 과음하는 대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음주에 대해 더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한다는 사실에 처음 주목한 이래, 여러 연구들에서 대학생들이 음주 규범을 잘못 지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들에서 대학생들은 으레 자신보다도 다른 학생들의 음주 정도가 더 심하다고 추정하였고, 또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음주규범은 집단 구성원들이 스스로 보고한 실제의 음주 평균보다도 더 높았다.

음주 규범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주에 대한 기술 규범과 제재 규범을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기술 규범(descriptive norms)이란 개별 음주상황에서의 다른 사람들의 음주량 및 음주빈도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 그리고 제재 규범(injunctive norms)은 다른 사람들이 음주에 대해서 얼마나 허용적인가에 대한 지각을 반영한다. 기술 규범과 제재 규범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이고 또 무엇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동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Cialdini, Kallgren, & Reno, 1991).

기술 규범을 다룬 연구들(Baer, 1994; Baer & Carney, 1993; Perkins, Meilman, Leichter, Cashin, & Presley, 1999)에서 대학생들은 대개 친한 친구들이나 일반 대학생들이 자신보다 술을 더 마시는 것으로 지각함으로써 주변동료들의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과대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료들의 음주 정도를 더 높게 지각한 대학생들이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Baer, Stacy, & Larimer, 1991; Borsari & Carey, 2000; Lewis & Neighbors, 2004; Neighbor, Dillard, Lewis, Bergstrom, & Neil, 2006). Neighbors, Lee, Lewis, Fossos와 Larimer(2007)의 연구에서는 성별, 사회적 규범, 음주동기, 음주에 대한 결과기대 등의 변인들 중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일반학생들이 전형적으로 마신다고 지각한 음주량(즉 기술 규범)이 개인의 음주량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과장되게 지각하고 있는 기술 규범을 교정하면 과음하는 대학생들의 음주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이 여러 연구들(Borsari & Carey, 2000; Larimer & Cronce, 2002; Lewis &

Neighbors, 2004, 2006; Mattern & Neighbors, 2004; Neighbors et al., 2006; Perkins, 2002)에서 밝혀졌다.

제재 규범은 합리적 행위이론(Ajzen & Fishbein, 1980, Neighbors et al., 2007에서 재인용) 및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91, Neighbors et al., 2007에서 재인용)에서의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과 유사하다. 비록 제재 규범과 주관적 규범 둘 다 개인으로 하여금 동조하게 압력을 가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들 개념 사이의 차이점은 규범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제재가 하는 역할에 있다(Rimal & Real, 2005). 즉 주관적 규범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제재 규범의 경우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사회적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제재 규범에 대한 지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데, 때로는 제재 규범에 대한 지각을 발달시키기 위해 직접 경험이 아닌 단서들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이런 경우, 어떤 행동의 발생 정도에 대한 정보인 기술 규범이 유용한 단서로 기능할 수 있다.

제재 규범 역시 기술 규범과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의 음주 정도를 잘 예측해주는 예언변인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친구들과 부모가 음주를 얼마나 허용하는가에 대한 지각과 대학생들의 음주간의 관계가 확인되었다(Baer, 1994; Knee & Neighbors, 2002; Kuther & Higgins-

D'Alessandro, 2003).

그런데 규범적 신념과 음주의 관계를 다룬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이 주로 미국 대학생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미국 이외의 몇몇 나라들에서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예로는 뉴질랜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ypril과 Langley(2003)의 연구, 영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cAlaney와 McMahan(2007)의 연구 그리고 캐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erkins(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분명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대학 상황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차이점들이 음주 규범의 지각과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먼저 나라마다 법정 음주허용 연령이 달라, 대학생의 음주행동이 합법적인가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적으로 음주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 신입생들 중에는 법정 음주허용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일부의 학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을 성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대학생이면 연령에 상관없이 대부분은 별다른 제약 없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합법적으로 술을 사고 마실 수 있는 연령은 21세로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음주에 대한 태도나 음주패턴이 우리나라와는 다를 수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음주와 취하는 것에 대한 태도에서 보다 광범위한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바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허용적인 음주문화를 가지고 있어(김광일, 1990;

김광일, 원호택, 진성태, 1973) 대학생들의 과음에 대한 수용도도 미국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구나 관계 형성 시에 술이 매개가 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남들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실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고 술 실력을 과시함으로써 자존심을 높히려 하고, 반대로 술을 잘 마시지 못하면 관계에서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은 마치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실제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잘못 지각하게 만들고,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음주 정도나 음주에 대한 관용의 정도를 과장되게 지각하도록 부추기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를 다룬 여러 연구들이 있었지만, 음주 규범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신입생들이 음주 규범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주 규범의 지각에 착오가 있는지 그리고 음주 규범의 지각과 음주 행동 및 음주문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지방에 소재한 한 대학교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대학에 입학한지 한 달 전후가 되는 기간(2008년 3월 24일 ~ 4월 4일)에 전체 신입생의 약 2/3에 해당하는 1,250부의 설문지를 각 단과대학별로 표집된 학과에 배포하였고, 그 중 97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78.1%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리고 회수된 설문지

중 우선 무응답 항목이 많거나 성의 없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53사례를 제거하고 또 최근 3개월 동안 술을 한 번도 마신 적이 없다고 응답한 49 사례를 제외시킨 후 87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국 분석에 포함된 모든 연구대상자들은 최근 3개월 동안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만 이루어졌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451명(51.6%)이었고 여학생은 423명(48.4%)이었는데, 이를 전체 신입생에 대한 학적 자료(남학생 57.1%, 여학생 42.9%)와 비교해보면 여학생이 약 5% 정도 과다 표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 평균은 18.7(표준편차 = 1.3)세였는데, 이는 신입생 전체 평균인 18.6(표준편차 = 2.7)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측정도구

음주빈도.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술을 마셨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7점 척도(0:한 번도 마신 적이 없다 ~ 6:거의 매일) 상에서 평정하게 한 후, 평정치를 주당 음주빈도(예: 월 1회 정도는 0.25, 주 1~2회 정도는 1.5, 거의 매일은 5)로 변환하였다.

평균주량. 최근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회 평균 주량을 알아보기 위해 술을 한 번 마실 때 어느 정도 마시는지를 맥주 혹은 소주를 기준으로 응답하게 하였는데, 응답자가 보다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17점의 Likert척도(0:전혀 안 마심 ~ 16:맥주 6400cc 이상 또는 소주 4병 이상)를 제시하고 자신의 음주량에 해당하는 번호를

하나 고르게 하였다. 만일 평상시에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는 경우에는 1회 음주 시 마시는 맥주의 양에 해당하는 번호와 소주의 양에 해당하는 번호를 합산하여 적게 하였다.

음주문제. 음주문제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행우(1999)가 만든 음주문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음주문제 척도는 세 가지 음주문제 영역 즉 학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의 손상을 묻는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문제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92였다.

음주 규범의 지각

기술 규범. 음주에 대한 기술규범을 알아보기 위해 참조집단들의 음주빈도와 평균주량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먼저 참조집단으로 설정한 친한 친구들과 일반 대학생들의 음주빈도를 어느 정도라고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와 동일한 음주빈도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게 한 후 평정치를 주당 음주빈도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평균 주량도 마찬가지로 위와 동일한 평균주량 평정 척도를 사용하여 참조집단 별로 각각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평균주량을 평정하게 하였다.

제재 규범. 먼저 Baer(1994)가 개발한 척도의 4개 문항(주말마다 음주, 매일 음주, 음주 운전, 만취) 중 2개 문항을 사용하여 '위험한 음주'에 대해 응답자 본인이 얼마나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

항은 거의 매일 술 마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내용이었으며, 이들 문항 각각에 대해 7점 척도(1:매우 반대 ~ 7:매우 허용)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두 문항 평정치의 평균을 산출하여 위험한 음주에 대한 개인의 태도 점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참조집단인 부모, 친한 친구들, 일반 대학생들 각각이 위험한 음주에 대해 얼마나 허용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 본인의 태도를 측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것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는 것에 대해 각각의 참조집단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지를 7점 척도(1:매우 반대 ~ 7:매우 허용) 상에서 평정하게 한 후, 참조집단 별로 2개 문항의 평균치를 산출하여 각 참조집단에 대한 지각된 제재 규범 점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한 음주에 대해 보다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 과

음주에 대한 기술 규범

대학교 신입생들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음주를 하고 또 술을 한 번 마실 때 얼마나 마시는지 그

리고 친한 친구들과 일반 대학생들은 얼마나 자주 음주를 하고 또 술을 한 번 마실 때 얼마나 마시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표 1). 조사대상자들은 평균 주 1.43회 정도 술을 마시고, 한 번 술을 마실 때는 평균적으로 맥주 약 2400cc(소주로는 1병 반) 정도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본인의 음주빈도와 조사대상자가 지각하고 있는 각 참조집단의 음주빈도 간에 차이가 있는지 또 조사대상자 본인의 평균주량이 조사대상자가 지각하고 있는 각 참조집단의 평균주량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음주빈도와 평균주량 각각에 대해 반복측정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음주빈도와 조사대상자가 지각하고 있는 타 참조집단들의 음주빈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2, 1746)=327.61, p<.001$, LSD를 통한 다중비교 결과 모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평균주량과 조사대상자가 지각하고 있는 타 참조집단들의 평균주량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2, 1746)=299.56, p<.001$, LSD를 통한 다중비교 결과 마찬가지로 모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친한 친구들과 일반 대학생들이 자신보다 더 자주 술을 마시고 또 술을 한 번 마실 때 더 많은 양을 마

표 1. 조사대상자의 실제 음주 및 각 참조집단의 음주에 대한 지각의 평균

	조사대상자 본인의 음주	친한 친구들의 음주에 대한 지각	일반 대학생의 음주에 대한 지각
	M(SD)	M(SD)	M(SD)
음주빈도 ^a	1.43(1.30)	2.03(1.51)	2.81(1.51)
평균주량 ^b	5.91(4.02)	8.00(4.23)	9.33(3.98)

a. 주당 음주 회수 b. 1단위=맥주 400cc 또는 소주 1/4병

시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고, 그 정도는 친한 친구들보다 일반 대학생들의 경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개인의 음주와 주변 사람들의 음주에 대한 지각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보기 위해 조사 대상자 본인의 음주빈도와 참조집단들의 지각된 음주빈도, 조사대상자 본인의 평균주량과 참조집단들의 지각된 평균주량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결과 2). 이를 살펴보면, 개인의 음주빈도는 친한 친구들의 지각된 음주빈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r=.55, p<.01$, 일반 대학생들의 지각된 음주빈도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24, p<.01$. 평균주량의 경우에는 친한 친구들의 지각된 평균주량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53, p<.01$, 일반 대학생들의 지각된 평균주량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33, p<.01$. 상관의 크기를 고려해보았을 때는, 음주빈도와 평균주량 모두에서 일반 대학생들에 대한 지각보다는 친한 친구들의 음주행동에 대한 지각과 더 강력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음주와 참조집단 음주에 대한 지각 간의 적률상관

음주측정치	참조집단	
	친한 친구들	일반 대학생
음주빈도	.55**	.24**
평균주량	.53**	.33**

** $p<.01$

앞서 표1에서 본 것처럼 개인의 음주빈도 및 평균주량이 참조집단들의 지각된 음주빈도 및 평균주량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와 같은 차이가 참조집단들의 실제 음주규범에서의 차이

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와는 다른 단순한 지각 상의 오류로 인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참조집단의 음주규범이 참조집단의 실제 음주규범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음주규범 지각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참조집단의 실제 음주규범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비록 본 연구의 대상자가 대학교 신입생으로 한정되어 이들이 일반 대학생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사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음주행동을 일반 대학생들의 실제 음주규범의 대략적인 근사치로 간주하여 일반 대학생에 대한 지각된 음주규범과 비교해보았다.

조사대상자들이 보고한 음주빈도의 중앙치에 해당하는 범주는 ‘주 1~2회 정도’였고, 평균주량의 중앙치는 맥주 2000cc로 나타나, 이를 일반 대학생들의 실제 음주규범으로 간주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일반 대학생의 음주규범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를 알아보았다. 음주빈도의 경우에는 일반 대학생의 지각된 음주빈도가 조사대상자들의 음주빈도 중앙치인 ‘주 1~2회 정도’와 일치하면 정확추정, ‘월 2~3회 정도’ 이하면 과소추정 그리고 ‘주 3~4회 정도’ 이상이면 과대추정으로 판정하였다. 평균주량의 경우에는 일반 대학생의 지각된 평균주량이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주량 중앙치인 맥주 2000cc를 기준으로 $\pm 20\%$ (1600~2400cc) 범위이면 정확추정, 1600cc미만이면 과소추정, 2400cc보다 높으면 과대추정으로 판정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대학생들의 음주빈도를 정확하게 추정한 학생들은 전체의 39.2%였고, 절반이 넘는 52.9%의 학생들

은 일반 대학생들이 실제보다도 더 자주 술을 마시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음주빈도와 일반 대학생의 지각된 음주빈도를 빈도항목별로 비교한 그림 1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 2~3회 이하의 낮은 빈도로 술을 마시고 있는 일반 대학생들이 실제로는 절반에 가까운 47.4%나 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들 중 단지 7.9%만 일반 대학생들이 월 2~3회 이하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과소추정 하였다. 반면 실제로는 일반 대학생들 중 18.4%만이 주 3~4회 이상 자주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들에게 일반 대학생들의 음주빈도를 추정하게 했을 때는 무려 52.9%가 일반 대학생들이 주 3~4회 이상 자주 술을 마신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평균주량의 경우에는 지각의 정확도가 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대학생들의 평균주량을 정확하게 추정한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들 중 28.3%였으며, 전체 조사대상자의 2/3가 넘는 70.3%의 학생들이 일반 대학생들의 평균주량을 과대추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 제시한 것과 같이 실제로는 일반 대학생들의 1/3에 육박하는 29.8%의 학생들의 평균주량이 맥주 1200cc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1.4%만이 일반 대학생들의 평균주량이 맥주 1200cc 이하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평균주량의 중앙치인 맥주 2000cc보다 20%를 넘는 양의 술을 마시는 학생들은 실제로는 35.6%였으나 조사대상자들이 지각하기로는 실제보다 2배 정도 되는 70.3%의 일반 대학생들이 술을 한 번 마실 때

표 3. 음주빈도와 평균주량 추정의 정확도

실제 음주규범 (중앙치)	음주규범 지각의 정확도			전체
	과소추정 N(%)	정확추정 N(%)	과대추정 N(%)	
음주빈도 (1~2회/주)	69(7.9)	343(39.2)	462(52.9)	874(100.0)
평균주량 (맥주2000cc)	12(1.4)	248(28.3)	614(70.3)	874(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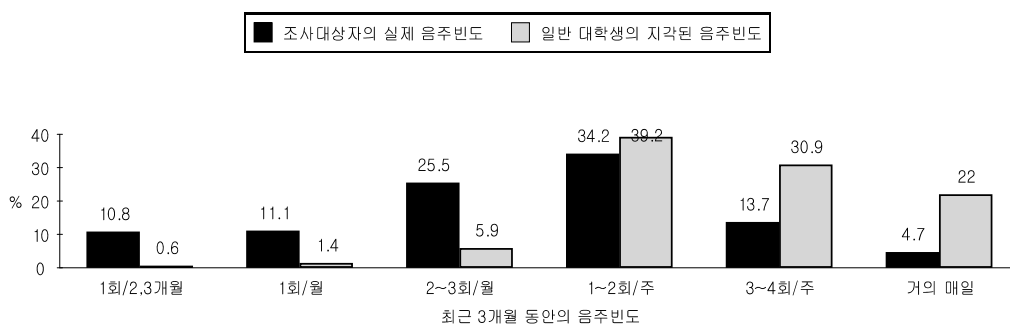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대상자의 음주빈도와 일반 대학생의 지각된 음주빈도

2400cc보다 더 많은 양을 마신다고 지각하였다. 그리고 평균주량이 맥주 6400cc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4.9%였으나, 조사대상자들에게 추정하게 했을 때는 일반 대학생들 중 16.2%나 되는 학생들이 술을 한 번 마실 때 맥주 6400cc 이상의 양을 마신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 대학생들의 음주빈도와 평균주량을 실제보다도 과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평균주량의 지각에서 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음주에 대한 제재 규범

대학교 신입생들이 거의 매일 술을 마시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음주에 대해 얼마나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와 같은 위험한 음주에 대해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들, 일반 대학생들의 허용 정도는 얼마나 된다고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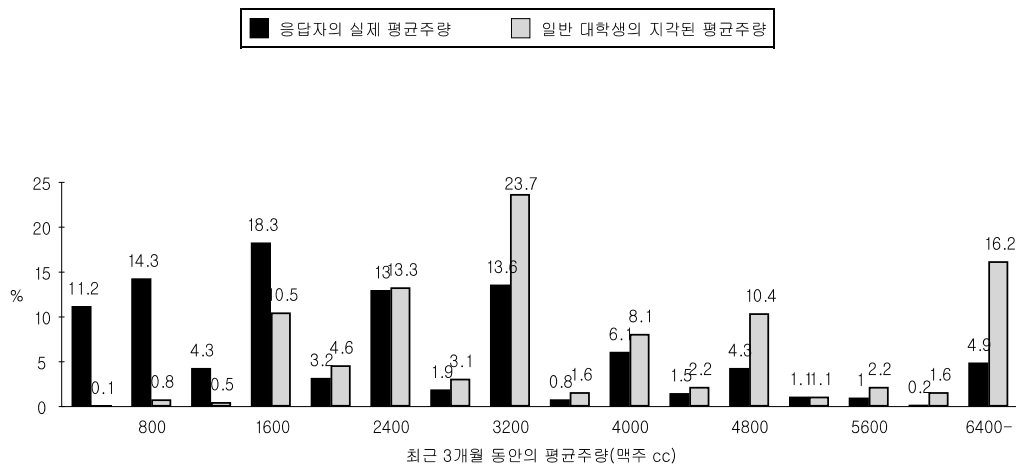


그림 2. 조사대상자의 평균주량과 일반 대학생의 지각된 평균주량

표 4. 위험 음주행동에 대한 조사 대상자 본인 및 참조집단의 허용 정도에 대한 지각

	조사대상자 M(SD)	부모님 M(SD)	친한 친구들 M(SD)	일반 대학생 M(SD)
매일 음주 ^a	3.10(1.56)	1.42(0.84)	2.76(1.51)	3.25(1.43)
만취 ^b	2.09(1.27)	1.27(0.70)	2.17(1.36)	2.70(1.41)
전체 ^c	2.59(1.24)	1.35(0.71)	2.47(1.24)	2.98(1.29)

- a. 거의 매일 술 마시는 것에 대한 허용의 정도
- b.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는 것에 대한 허용의 정도
- c. a와 b의 응답을 평균한 값

았다. 표 4에 위험한 음주행동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허용도와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각 참조집단의 허용 정도의 평균을 제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들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참조집단들도 모두 위험한 음주행동에 대해 공통적으로 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는데, 특히 부모님은 매우 반대에 가까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일반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반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위험한 음주에 대한 허용 정도에서 조사대상자와 각 참조집단의 허용 정도 지각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ANOVA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 2610)=537.61, p<.001$. 그리고 LSD를 통한 다중비교 결과 모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더불어 매일 음주하는 것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음주에 대한 개인의 허용 정도와 부모님, 친한 친구들, 일반 대학생들이 이와 같은 위험한 음주에 대해 얼마나 허용적인지에 대한 지각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위험한 음주

에 대한 개인의 허용 정도는 특히 친한 친구들의 허용 정도 지각과 가장 높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r=.59, p<.01$, 일반 대학생들의 허용도 지각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43, p<.01$. 부모님의 허용도 지각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38, p<.01$. 이는 매일 음주하는 것과 같은 빈번한 음주와 만취할 정도로 과음하는 등의 위험한 음주행태에 대해 일반 대학생들이나 부모님 보다는 친한 친구들이 자신과 더 유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음주규범과 음주 정도 및 음주문제의 관계

음주규범이 음주 정도 및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는 중다회귀분석에 포함된 예언변인들과 준거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예언변인들 간에는 .07~.56 범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진단을 위해 공차(tolerance)와 변산 팽창 계수(VIF)를 점

표 5. 음주규범 변인들과 음주빈도, 평균주량 및 음주문제 간의 적률상관

	1	2	3	4	5	6	7	8	9	10
1.음주빈도(친구들)	-									
2.음주빈도(대학생)	.38‡	-								
3.평균주량(친구들)	.35‡	.21‡	-							
4.평균주량(대학생)	.12‡	.30‡	.56‡	-						
5.체재규범(부모님)	.10†	.07*	.10†	.07*	-					
6.체재규범(친구들)	.22‡	.14‡	.27‡	.18‡	.40‡	-				
7.체재규범(대학생)	.12‡	.17‡	.10†	.20‡	.21‡	.42‡	-			
8.음주빈도	.55‡	.24‡	.23‡	.09†	.14‡	.29‡	.13‡	-		
9.평균주량	.24‡	.10†	.53‡	.33‡	.17‡	.28‡	.09†	.45‡	-	
10.음주문제	.30‡	.13‡	.23‡	.11†	.26‡	.27‡	.15‡	.44‡	.33‡	-

* $p<.05$ † $p<.01$ ‡ $p<.001$

검한 결과 가장 낮은 공차는 .771이었고 가장 높은 VIF는 1.297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음주빈도의 예측

음주빈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어떤 음주규범 변인들이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참조집단별 음주에 대한 기술 규범(음주빈도와 평균주량)과 제재 규범(위험한 음주에 대한 허용도)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개인의 음주빈도를 준거변인으로 삼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6)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친한 친구들의 음주빈도, $t(868)=17.8, p<.001$,와 제재 규범, $t(868)=6.4, p<.001$,이 음주빈도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으며, 이들 변인은 음주빈도 전체 변산 중 32.9%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 포함된 여러 참조집단들 중 오직 친한 친구 집단의 음주에 대한 지각만이 개인의 음주빈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즉 친한 친구들이 보다 더 자주 술을 마시는 것으로 지각한 학생일수록 음주빈도가 더 높고 또 매일 음주하거나 만취하는 것에 대해 친구들이 보다 더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한 학생일수록 더 자주 술을 마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주량의 예측

평균주량을 예측하는데 있어 어떤 음주규범 변인들이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참조집단별 음주에 대한 기술 규범(음주빈도와 평균주량)과 제재 규범(위험한 음주에 대한 허용도)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개인의 평균주량을 준거변인으로 삼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친한 친구들의 평균주량, $t(867)=16.8, p<.001$,과 제재 규범, $t(867)=3.5, p<.001$, 그리고 부모님의 제재 규범, $t(867)=2.5, p<.05$,이 평균주량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평균주량

표 6. 음주빈도, 평균주량 및 음주문제에 대한 음주규범 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음주빈도				평균주량				음주문제			
	B	β	t	ΔR^2	B	β	t	ΔR^2	B	β	t	ΔR^2
기술규범												
빈도(친구들)	.44	.51	17.8 \ddagger	.297					1.31	.21	6.3 \ddagger	.086
빈도(대학생)												
주량(친구들)					.47	.49	16.8 \ddagger	.283	.23	.10	3.1 \ddagger	.009
주량(대학생)												
제재규범												
부모님					.44	.08	2.5*	.005	2.25	.17	5.1 \ddagger	.052
친구들	.19	.18	6.4 \ddagger	.032	.36	.11	3.5 \ddagger	.019	.95	.13	3.6 \ddagger	.018
대학생												
R^2				.329				.307				.165

* $p<.05$ † $p<.01$ ‡ $p<.001$

전체 변산 중 30.7%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대부분은 친한 친구들의 평균주량을 통해 예측되는 변산이었고 나머지 두 변인 각각의 설명력은 2%가 채 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보면 평균주량의 경우에도 음주빈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친한 친구 집단의 평균주량에 대한 지각이 개인의 평균주량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친한 친구들이 위험한 음주에 대해 얼마나 허용적이라고 지각하는가도 크지는 않지만 평균주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문제의 예측

음주문제를 예측하는데 있어 어떤 음주규범 변인들이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참조집단별 음주에 대한 기술 규범(음주빈도와 평균주량)과 제재 규범(위험한 음주에 대한 허용도)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개인의 음주문제를 준거변인으로 삼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6)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친한 친구들의 음주빈도, $t(862)=6.3, p<.001$, 부모님의 제재 규범, $t(862)=5.1, p<.001$, 친한 친구들의 제재 규범, $t(862)=3.6, p<.001$, 친한 친구들의 평균주량, $t(862)=3.1, p<.01$, 이 음주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 이들 변인은 음주문제 전체 변산 중 16.5%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문제의 예측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친한 친구들의 음주빈도, 평균주량, 제재 규범에 대한 지각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더해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님의 제재 규범이 음주문제 예측에 있어 5.2%의 설명량을 더해주는 유의한 예측변인이라는 점이다. 이는 매일 음주하거나 만취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이 보다 더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한 학생일수록 음주문제의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논 의

대학생 시절은 본격적인 음주가 시작되고 또 음주량이 급격하게 느는 시기이다. 대학생의 음주에는 일관되게 동료들이 연관되어 있으며, 동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동료들이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동료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어떤 행동이 적절하고 또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음주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Borsari & Carey, 2001).

대학생 음주에서 동료의 영향이 차지하는 이 같은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동료들의 음주규범에 대한 지각과 음주행동 및 음주문제 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대학생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먼저 음주에 대한 기술 규범과 관련하여 대학 신입생들이 친한 친구들과 일반 대학생들의 음주빈도와 평균주량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신입생들은 자신보다는 친한 친구들이 또 친한 친구들보다는 일반 대학생들이 술을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은 양을 마신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과 사회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음주빈도와 평균주량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여러 연구들

(Baer & Carney, 1993; McAlaney & McMahon, 2007; Thombs, Wolcott, & Farkash, 1997)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리고 개인의 음주빈도 및 평균주량과 참조집단(친한 친구들, 일반 대학생)의 음주빈도 및 평균주량 지각 간에 .24~.55 범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 같은 상관 양상은 외국의 여러 연구들(Kypri & Langley, 2003; Lee, Geisner, Lewis, Neighbors & Larimer, 2007; McAlaney & McMahon, 2007; Neighbors et al., 2007)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부분 기술 규범의 측정치로 음주량을 사용하였는데, 개인의 음주량과 친한 친구들의 음주량에 대한 지각간의 상관은 .67~.76, 개인의 음주량과 일반 대학생들의 음주량에 대한 지각간의 상관은 .41~.62의 범위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관보다는 약간 더 큰 상관을 보였다. 기술 규범의 측정치에 음주빈도를 포함한 McAlaney와 McMahon(2007)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음주빈도와 친한 친구들의 음주빈도에 대한 지각간의 상관인 .46, 개인의 음주빈도와 일반 대학생들의 음주빈도에 대한 지각간의 상관인 .29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상관의 크기는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관계의 강도 면에서 일관되게 친한 친구들의 음주행동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가 일반 대학생들의 음주행동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 친한 친구들의 음주습관에 대한 지각이 개인의 음주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친한 친구들의 음주에 대한 지각이 개인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의 음주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친구들의 음주 정도를 과대하게 지각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자신이 친한 친구들이나 일반 대학생들보다 술을 덜 자주 마시고 또 술을 한 번 마실 때 더 적은 양을 마시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지각이 다른 사람들의 실제 태도와 행동을 항상 정확하게 반영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음주빈도와 평균주량의 중앙치를 일반 대학생들의 실제 음주규범으로 간주하여, 일반 대학생들의 음주빈도와 평균주량에 대한 지각의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일반 대학생들의 음주빈도와 평균주량 모두를 실제보다 더 과대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대학생들의 음주빈도를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39.2%, 과소 추정하는 학생들은 7.9%였으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은 음주빈도를 실제 규범보다 과대 추정하였다. 평균주량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했는데, 일반 대학생들의 평균주량을 실제보다 과대 추정하는 학생의 비율이 무려 70.3%나 되었으며, 단지 1.4%의 학생만이 평균주량을 과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외국의 여러 연구(Kypri & Langley, 2003; McAlaney & McMahon, 2007; Perkins, 2007; Perkins, Haines, & Rice, 2005)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도 일반 대학생들의 음주 양상에 대한 지각에서 상당한 오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에 대한 기술 규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음주에 대한 허용도 지각을 의미하는 음주에 대한 제재 규범도 개인의 음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위험한 음주에 대해 얼마나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것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부모님은 자신보다 더 반대한다고 지각하고 있었고, 반면 일반 대학생들은 자신보다 덜 반대한다고 즉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친한 친구들은 두 문항의 값을 평균한 전체점수에서 자신보다 약간 더 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험한 음주에 대한 허용 정도 지각에서의 개인과 참조집단들 간 상관을 산출한 결과, 개인과 친한 친구들 간에 가장 높은 유의한 정적 상관($r=.59$)이 나타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음주행동에 대한 태도는 친한 친구들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이 동료들의 음주규범을 지각하는데 있어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그렇다면 개인이 참조집단의 음주규범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과연 음주빈도, 평균주량 및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참조집단별 음주에 대한 기술 규범과 체재 규범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음주빈도와 관련해서는 친한 친구들의 지각된 음주빈도와 위험 음주에 대한 친한 친구들의 지각된 허용도가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평균주량과 관련해서는 친한 친구들의 지각된 평균주량과 위험 음주에 대한 친한 친구들의 지각된 허용도가 유의한 예측변인이었으며 비록 추가적인 설명력이 크지는 않았으나 위험 음주에 대한 부모님의 지각된 허용도도 평균주량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그리고 음주문제의 경우에는 친

한 친구들의 지각된 음주빈도, 평균주량, 위험 음주에 대한 허용도 그리고 위험 음주에 대한 부모님의 지각된 허용도가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는데, 친한 친구들의 음주행동과 태도에 대한 지각은 음주문제 전체 변산의 11.3%를, 위험 음주에 대한 부모님의 지각된 허용도는 음주문제 전체 변산의 5.2%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집단별 음주규범 지각을 통한 음주빈도, 평균주량 및 음주문제 예측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음주빈도, 평균주량, 음주문제 모두에서 친한 친구들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학생들은 친한 친구들이 술을 더 자주 더 많은 양을 마시고 위험한 음주에 대해 덜 반대한다고 지각할수록 술을 더 자주 더 많이 마시고 음주문제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반 대학생들의 음주규범에 대한 지각은 음주빈도, 평균주량, 음주문제 그 어느 것에도 유의한 예측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상 밖의 결과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교 신입생들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학에 갓 입학하여 이제 대학생활을 겨우 한 달 정도밖에 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 대학생들의 음주행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기회가 많지 않아 일반 대학생들의 음주행동을 막연하게 과대 추정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결국 실제의 음주행동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대학생들의 음주규범에 대한 지각이 가지는 영향력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학년을 다양하게 표집하여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으로 참조집단과의 동일시를 고려해볼 수 있겠

다. 즉 대학생에게 있어 친한 친구들은 중요한 동
일시 대상 집단으로서 친한 친구들의 태도나 행
동은 개인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만, 일반 대학생들은 거리감이 있는 막연한 집단
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나와는
별 상관없다는 식으로 여겨져 규범의 영향력이
별로 없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실제의 음주규범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줌으로써 잘못 지각하고 있는 음주규범을 교정해
주면 과음을 줄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사회
규범 마케팅 캠페인(social norms marketing
campaigns)’ 같은 규범-기반 개입 프로그램을 대
학 신입생에게 적용할 때 일반 대학생의 음주 수
준에 대한 자료를 음주규범 지표로 제시하는 것
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일반 대학생들의 음주행동이나 음주에 대한 태
도의 지각이 개인의 음주에 거의 영향력이 없었
던 것에 비해 부모님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
난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본 연구에서
는 부모님의 제재 규범 지각 즉, 위험한 음주에
대한 부모님의 허용 정도 지각이 평균주량의 예
측에서 유의한 예측변인이었으며, 음주문제의 예
측에서도 5.2%의 설명력을 지닌 유의한 예측변인
이었다. 부모가 음주를 허용하는 정도와 자녀의
음주 및 음주문제의 정도 사이에 정적 관계가 있
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들(Abar & Turrisi,
2008; Boyle & Boekeloo, 2006; Wood, Read,
Mitchell, & Brand, 2004)에서 밝혀졌다. 일반적으
로 자녀가 성장하여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자
율성의 신장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
력은 약화되어 신입생 자녀의 음주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Wood, Reed, Palfai,
& Stevenson, 2001; Schulenberg & Maggs,
2002). 하지만 자녀의 대학 진학 후에도 부모가
여전히 자녀의 음주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보여준 여러 연구들(Abar & Turrisi, 2008;
Sessa, 2005; Turrisi, Jaccard, Taki, Dunham, &
Grimes, 2001; Wood et al, 2004)이 있었다. 예컨
대 Wood 등(2004)은 부모가 자녀에게 정해진 음
주량의 상한선에 따라 대학생 자녀의 음주 및 음
주문제에 미치는 동료의 영향이 달라짐을 보여주
었다. 즉 부모가 보다 엄격한 음주한계를 정해진
학생들의 경우에는 동료가 자녀의 음주에 미치는
영향이 덜 하였는데, 이 같은 결과는 자녀가 대학
생활 때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의 음주 의사결
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동료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음을 지지해주는 증
거이다.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친한 친구들의 음주
규범과 부모님의 음주규범이 음주빈도나 주량 및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
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자녀가 대학교에서 술을
마시는 친구들을 선택하는 과정에 부모가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음주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Abar와 Turrisi(2008)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연구에서 자녀
가 자유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 부모
가 알려고 노력하고 또 실제로 더 많이 알고 있
다고 자녀가 지각할수록 과음하는 대학생 동료들
과 어울리는 경향성이 더 적었고 또한 술도 더
적게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대학 신입생들
을 대상으로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반드시 부모님을 참여시킴으로써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감찰(monotoring)을 강화하고 반면 잘못된 음주에 대해서는 부모의 반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시도와 관련하여 참고해볼만 한 예로는, 대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부모에게 폭음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자녀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그들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한 후 음주와 음주문제 수준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 Turrisi 등(2001)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대학생의 음주규범 지각과 음주 행동 및 음주문제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대학생 음주문제 예방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횡단적 자료를 사용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인과관계의 추론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비추어보아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 추론을 할 수도 있겠으나, 양방향적 관계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자를 음주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않는 대학생들에게까지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또한 대학 신입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학생활에 더 광범위하게 노출된 2~4학년 대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향후 전체 학년을 모두 포함하는 표집을 통해 재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음주에서의 성차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음주규범 지각에서의 성차를 따로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이 각각 남자 대학생의 음주규범과 여자 대학생의 음주규범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따로 측정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음주규범의 지각과 음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광일 (1990). 한국의 알코홀리즘. *정신건강연구*, 9, 131-147.
- 김광일, 원호택, 진성태 (1973). 정신증상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조사. *신경정신의학*, 12(1), 41-52.
- 신행우 (1999). 성격 특성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05-122.
- 이원재 (2001). 대학생의 음주양태. *보건과 사회과학*, 10, 79-95.
- 임국환, 이준협, 최만규, 김춘진 (2004). 대학생들의 음주 및 흡연실태와 관련성 분석. *대한보건연구*, 30(1), 57-70.
- 정영철, 은홍배, Li Bing, Zhang Wei-xi (1999).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음주행동 및 인식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33(2), 317-324.
- Abar, C., & Turrisi, R. (2008). How important are parents during the college years? A longitudinal perspective of indirect influences parents yield on their college teens' alcohol use. *Addictive Behaviors*, 33(10), 1360-1368.
- Baer, J. S. (1994). Effects of college residence on perceived norms for alcohol consumption: An examination of the first year in college.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8(1), 43-50.
- Baer, J. S., & Carney, M. M. (1993). Biases in the

-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of alcohol us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4(1), 54-60.
- Baer, J. S., Stacy, A., & Larimer, M. (1991). Biases in the perception of drinking norm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2(6), 580-586.
- Berkowitz, A. D., & Perkins, H. W. (1986).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A review of recent research.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35(1), 21-28.
- Borsari, B., & Carey, K. B. (2000). Effects of a brief motivational intervention with college student drink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4), 728-733.
- Borsari, B., & Carey, K. B. (2001). Peer influences on college drinking: A review of the research. *Journal of Substance Abuse*, 13(4), 391-424.
- Borsari, B., & Carey, K. B. (2003). Descriptive and injunctive norms in college drinking: A meta-analytic integratio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4(3), 331-341.
- Boyle, J. R., & Boekeloo, B. O. (2006). Perceived parental approval of drinking and its impact on problem drinking behaviors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4(4), 238-244.
- Cialdini, R. B., Kallgren, C. A., & Reno, R. R. (1991). A focus theory of normative conduct: Recycling the concept of norms to reduce littering in public pla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305-313.
- Collins, R. L., Parks, G. A., & Marlatt, G. A. (1985). Social determinants of alcohol consumption: The effects of social interaction and model status on the self-administration of alcoho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2), 189-200.
- Hasin, D. S., Stinson, F. S., Ogburn, E., & Grant, B. F. (2007). Prevalence, correlates, disability and comorbidity of DSM-IV alcohol abuse and dependence in the United Stat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4, 830-842.
- Hingson, R., Heeren, T., Winter, M., & Wechsler, H. (2005). Magnitude of alcohol-related mortality and morbidity among U.S. college students ages 18-24: Changes from 1998 to 2001.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26, 259-279.
- Johnson, L. D., O'Malley, P. M., Bachman, J. G., & Schulenberg, J. E. (2008). *Monitoring the Future. National Survey Results on Drug Use 1975-2005. Volume II: College Students and Adults Age 19-25, 2006.* www.monitoringthefuture.org/pubs/monographs/vol2_2005.pdf.
- Knee, C. R., & Neighbors, C. (2002). Self-determination, perception of peer pressure, and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3), 522-543.
- Kuther, T. L., & Higgins-D'Alessandro, A. (2003). Attitudinal and normative predictors of alcohol use by older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Journal of Drug Education*, 33, 71-90.
- Kypri, K., & Langley, J. D. (2003). Perceived social norms and their relation to university student drinking.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4(6), 829-834.
- Larimer, M. E., & Crouce, J. M. (2002). 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treatment: A review of individual-focused strategies to reduce problematic alcohol consumption b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SUPPL. 14), 148-163.
- Lee, C. M., Geisner, I. M., Lewis, M. A., Neighbors,

- C., & Larimer, M. E. (2007). Social Motive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descriptive and Injunctive norms in college student drinking.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68(5), 714-721.
- Lewis, M. A., & Neighbors, C. (2004). Gender-specific misperceptions of college student drinking norm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8(4), 334-339.
- Lewis, M. A., & Neighbors, C. (2006). Social norms approaches using descriptive drinking norms education: A review of the research on personalized normative feedback.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4(4), 213-218.
- Mattern, J. L., & Neighbors, C. (2004). Social norms campaigns: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perceived norms and changes in drinking level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5(4), 489-493.
- McAlaney, J., & McMahon, J. (2007). Normative beliefs, misperceptions, and heavy drinking in a british student sampl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68(3), 385-392.
- Neighbors, C., Dillard, A. J., Lewis, M. A., Bergstrom, R. L., & Neil, T. A. (2006). Normative misperceptions and temporal precedence of perceived norms and drinking.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7(2), 290-299.
- Neighbors, C., Lee, C. M., Lewis, M. A., Fossos, N., & Larimer, M. E. (2007). Are social norms the best predictor of outcomes among heavy-drink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68(4), 556-565.
- Perkins, H. W. (2002). Social norms and the prevention of alcohol misuse in collegiate contex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SUPPL. 14), 164-172.
- Perkins, H. W. (2007). Misperceptions of peer drinking norms in Canada: Another look at the "reign of error" and its consequences among college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32, 2645-2656.
- Perkins, H. W., & Berkowitz, A. D. (1986). Perceiving the community norms of alcohol use among students: Some research implications for campus alcohol education programm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1(9-10), 961-976.
- Perkins, H. W., Haines, M. P., & Rice, R. (2005). Misperceiving the college drinking norm and related problems: A nationwide study of exposure to prevention information, perceived norms and student alcohol misus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6(4), 470-478.
- Perkins, H. W., Meilman, P. W., Leichliter, J. S., Cashin, J. R., & Presley, C. A. (1999). Misperceptions of the norms for the frequency of alcohol and other drug use on college campuse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7(6), 253-258.
- Rimal, R. N., & Real, K. (2005). How behaviors are influenced by perceived norms a test of the theory of normative social behavior. *Communication Research*, 32(3), 389-414.
- Schulenberg, J. E., & Maggs, J. L. (2002).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lcohol use and heavy drinking during adolescence and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SUPPL. 14), 54-70.
- Sessa, F. M. (2005).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ing on substance use during the transition to college: A comparison of male residential and commuter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6(1), 62-74.
- Thombs, D. L., Wolcott, B. J., & Farkash, L. G. E.

- (1997). Social context, perceived norms and drinking behavior in young people. *Journal of Substance Abuse*, 9(1), 257-267.
- Vik, P. W., Carrello, P., Tate, S. R., & Field, C. (2000). Progression of consequences among heavy-drinking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4(2), 91-101.
- Wechsler, H., Lee, J. E., Kuo, M., & Lee, H. (2000). College binge drinking in the 1990s: A continuing problem. results of the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1999 college alcohol study.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8(5), 199-210.
- Wood, M. D., Read, J. P., Mitchell, R. E., & Brand, N. H. (2004). Do parents still matter? parent and peer influences on alcohol involvement among recent high school graduate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8(1), 19-30.
- Wood, M. D., Read, J. P., Palfai, T. P., & Stevenson, J. F. (2001). Social influence processes and college student drinking: The mediational role of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2(1), 32-43.
- Turrisi, R., Jaccard, J., Taki, R., Dunnam, H., & Grimes, J. (2001). Examination of the short-term efficacy of a parent intervention to reduce college student drinking tendencie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5(4), 366-372.

원고접수일: 2009년 10월 12일

수정논문접수일: 2009년 11월 18일

게재결정일: 2009년 12월 3일

Perceived Drinking Norms and their Relation to College Student Drinking

Haeng-Woo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Woosuk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drinking norms and drinking behavior in Korea. Participants included 874(451 men, and 423 women) first-year undergraduates who reported at least one drinking episode in the previous three months. Participants completed assessments of drinking frequency, drinking quantity, drinking problems, perceived descriptive norms regarding close friends' and typical student drinking, and perceived injunctive norms regarding parents' and close friends' and typical students' approval. In perceived descriptive norms, the majority of respondents rated close friends and typical students as drinking more frequently, drinking more. In perceived injunctive norms, students estimate that typical students are more approving of high-risk drinking and parents are perceived to disapprove of high-risk drinking more than the student. Regression results indicated that descriptive and injunctive norms regarding close friends were among the best predictors of drinking frequency, average quantity and drinking problems. And injunctive norms regarding parents was significant predictor of drinking problems. The findings of the study ascertain the influence of drinking norms on college student drinking in Korea and suggest that parents continue to exhibit influence on their teens' drinking in college. Results are considered in terms of their implic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rinking problems in first-year college students.

Keywords: drinking norms, descriptive norms, injunctive norms, drinking problem